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조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29호 [루체 제25272호] 주제 105 (2016)년 5월 8일 (일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한 당 중앙위원회 김정은

동지들!  
조선로동당 제6차 대회가 전개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은  
우리 당의 오랜 역사에  
서 더없이 존엄한 투쟁  
의 시기였으며 위대한  
전변이 이룩된 영광  
스러운 승리의 날대였습  
니다.

총결기간 조선로동당은 류례없이 엄혹한  
환경 속에서 혁명발전  
의 매 단계마다 주체적인  
인로선과 정책을 제시  
하고 위대한 우리 인민  
에게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줄기차게 전진  
시킴으로써 사회주의  
위업 수행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고 조국  
번영의 새시대를 펼쳐  
놓았습니다.

역사상 그 어느 당  
과 인민도 겪어보지  
못한 간고하고도 험난  
한 혁명의 길을 헤쳐  
오는 과정에 우리 당  
은 자기 사상과 위업  
의 정당성과 불폐성을  
대하여 깊이 확신하게  
되었으며 당을 따라  
영원히 주체의 한길로  
나아가려는 우리 인민

의 각오와 의지는 더욱 굳세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은 불굴의  
정신력과 영웅적인 투쟁으로 자랑찬 위훈을 세겨온  
잊을수 없는 추억과 가슴벅찬 승리자의 자부심을 안  
고 당 제7차 대회를 뜻깊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가치높이 우리 당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주의 강국건설과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데서 역사의 분수령으로  
될것입니다.

동을 악랄하게 감행하였습니다.

조선로동당은 조성된 존엄한 정세에 대처하여 제  
국주의자들의 반혁명적 공세를 혁명적 공세로 짓부  
서비릴 단호한 의지로 사회주의 위업을 옹호고수하  
고 전진시키기 위한 파감한 투쟁을 조직전개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혁명적인 사상으로 제국주의자들의  
공격과 비난으로부터 사회주의 사상과 리념을 옹호  
고수하고 우리 정체 사상전지를 굳건히 다지였습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의 좌절과 반사회주의 사상조류  
의 역풍속에서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의 자주적 힘상이  
고 정의이며 그 승리는 편연적이라는 것을 파악리론  
적으로 혼종합으로써 인민들에게 사회주의에 대한  
신심을 안겨주고 사회주의의 《종말》에 대하여 떠드  
는 제국주의자들과 반통들에게 실대한 타격을 주었  
습니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정치사상교양의  
도수를 더욱 높여 전체 인민이 사회주의는 지키면 승  
리이고 버리면 죽음이라는 신념을 굳게 간직하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  
나서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변화된 국제적 환경과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교훈으로부터 정치사상전지를 빼방으로 강  
화하는 것과 함께 사회주의 건설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의 본래를 고수하고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밟아시켜나갔습니다.

주체의 사회주의 위업의 정당성과 그 승리에 대한  
굳은 신념, 변함없이 당을 따르는 우리 인민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 기초하여 우리 당은 주체사상의 기  
치, 사회주의의 가치를 계속 높이 추켜들고 사회주의  
위업을 줄기차게 전진시키나갔습니다.

격변하는 정세 속에서 우리의 사회주의 위업이 주체의  
궤도를 따라 승리적으로 전진하고 조국통일의 밝은 전  
망이 열리고 있던 시기에 우리 당과 인민은 하늘처럼

밀고 따르면 위대한  
수령님을 뜻밖에 잃는 청  
천벽력 같은 민족의 대국  
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 서거  
하신 것은 우리 당과 인  
민의 최대의 슬픔이고  
상실이었으며 우리 혁명  
에 있어서 가장 큰 시련  
이었습니다.

민족의 대국상 후 우리를  
알살하려는 제국  
주의자들과 그 추종세  
력들의 정치군사적 압력  
과 전쟁 도발책 등, 경제  
적봉쇄는 국도에 이르  
렀으며 여기에 혹심한  
자연재해까지 겹쳐 어  
경제건설과 인민 생활에  
서 형언할 수 없는 시련  
과 난관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국의 안전과  
사회주의의 운명은 위험  
에 처하게 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역사에 류례  
없는 고난의 행군, 강행  
군을 하지 않으면 안되  
었습니다.

세계가 조선의 운명  
에 대하여 우려하고 제  
국주의 반동들이 어리석  
게도 우리의 《로선변  
화》와 《체제봉파》에

대하여 떠들썩 시기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이 아무리 험난하다 해도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 위업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갈 철석의 의지를 단호히 선언  
하시었으며 혁명과 건설을 오로지 수령님의 뜻대로,  
수령님식대로 현명하게 령도하시었습니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  
에 위대한 수령님의 위업을 계승하여 조선혁명의 배  
승의 전로인 선군혁명로선을 확고히 간지하고 선군  
정치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선군정치는 총대증시,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군사를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주력군  
으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에 의지하여 사회  
주의 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는 김정일동지식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입니다.

선군정치에는 혁명의 총대우에 나라와 민족의 존엄  
도, 혁명의 승리도 있다는 선군혁명의 원리가 구현되  
여 있으며 혁명은 오직 자기 힘을 강화하고 자체의 힘  
으로 하여야 한다는 자력자강의 정신과 우리 당의 드  
림없는 반체자주적립장, 혁명적원칙이 집대성되어있습  
니다.

선군은 조선혁명의 영광스러운 전통이며 선군정치는  
주체의 가치밀에 총대로 개척되고 전진하여온 우리 혁  
명의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있습니다.

위대한 주체사상을 뿌리로 하여 선군정치방식이 창  
조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투쟁과정에 다져  
진 정치사상적, 군사적립이 있었기에 선군의 위력이 높  
이 발양되고 주체혁명의 세시대, 선군시대가 펼쳐질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의 위업에 충실했던 우리  
군대와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밀음을 지니고 선군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주체의 사회주의 위업을 승리의 한  
걸로 이끄시었습니다.

#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한 사업총화 보고

## 1면에 서 채 속

우리 당은 선군혁명의 주력군인 인민군대를 배방으로 강화하면서 국방위주의 국가기구체계를 확립하고 모든 분야를 선군의 원칙과 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정비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군사증시,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국방공업 발전에 선착적인 힘을 넣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적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 등이 국도에 달하고 온 나라가 허리띠를 줄과매야 했던 엄혹한 시기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힘의 의지를 지니시고 우리의 국방공업을 강원력한 자작적 국방공업으로 더욱 둔튼히 강화발전시키셨습니다.

선군정치에 의하여 마련된 주체적 국방공업은 제국주의 자들의 침략책동을 것부시고 조국의 안전과 사회주의의 성세를 든든히 보위 할 수 있게 한 담보로 되었습니다.

조선로동당은 선군정치의 전 행정에서 반제자주적립장과 사회주의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였습니다.

반제자주적립장과 사회주의원칙은 혁명적당이 사회주의의 위업수행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 근본원칙이며 이것은 혁명과 반혁명, 사회주의와 기회주의를 가르는 시금석입니다.

반제자주적립장, 사회주의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지난 고난의 행군시기처럼 우리 당과 인민 앞에 자주적인 민으로 존엄하게 사느냐, 또다시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느냐 하는 사생결단의 문제로 첨예하게 나선 때는 일찌기 없었습니다.

우리 당은 청세가 엄혹할수록 선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총대의 위력에 의지하여 반제자주적립장과 사회주의원칙을 견결히 지킴으로써 우리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확신성 있게 이끌어나갔습니다.

우리 당은 적들이 칼을 빼들면 장검을 휘두르고 총을 들이대며 대포를 내대는 초강경대응으로 제국주의 자들의 횡포한 압력과 도전을 단호히 제압분쇄하였으며 우리 주변에서 어지럽게 불어오는 부르죠아자유화 바람과 〈개혁〉, 〈개방〉바람도 선군총대의 기상으로 날려버리며 우리가 선택한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끝까지 진전했습니다.

맹건종식후 적지 않은 나라들이 미국의 군사적 압력과 전횡에 기가 눌리워 원칙을 저버리고 타협과 굽종의 길로 나아가고 있을 때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반제자주적립장과 사회주의원칙을 견지하여온 조선로동당의 두 생경험은 제국주의와의 힘의 대결전의 시대인 오늘 반제자주, 사회주의원칙은 말이나 글로 쌓아 아니라 오직 강력한 총대에 의해서만 지켜지고 고수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선로동당은 무적절승의 총대의 위력으로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키고 사회주의를 수호하며 전진시키기 위한 투쟁을 승리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 당은 강력한 군사적 힘에 의지하여 제국주의 자들과 그 주종세력들의 가증되는 군사적 압력과 침략적 통을 걸을마다 여지없이 짓부셔버리였습니다.

제국주의 반동들은 우리의 전전을 가로막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압살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제재와 봉쇄책 등에 매달리면서 우리 나라를 해선태타격대상으로까지 정하고 침략책 등에 광분하였지만 선군의 위력으로 철의 성세를 이룬 우리 공화국을 추호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 당은 나라의 자주권과 우리 인민의 운명을 침해하고 우리 제도를 압살하려는 적들의 토벌화되는 군사적 공갈과 침략책 등에 단호히 맞받아나갔으며 전당, 전군, 전민을 정의의 조국보위전, 사회주의의 수호전에 총궐기시켰습니다.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한결같이 일떠선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 우리는 장기간에 걸친 치열한 반제반미대결전에서 련전련승을 이룩하고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였으며 조국의 안전과 자주권, 사회주의를 영예롭게 수호하였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전쟁도발책 등을 짓부시고 인민을 전쟁의 참화에서 구원함으로써 우리 당은 조국과 인민의 운명의 수호자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습니다.

지금 세계도처에서 전쟁의 침화가 그치지 않고 여러 나라 인민들이 살길을 찾아 방황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지난 수십년동안 전쟁의 포성이 한번도 울리지 않았으며 우리 인민들은 비록 생활이 유족하지는 못해도 전쟁을 모르는 속에 평화롭고 안정된 생활을 누려왔습니다.

이것은 다름아닌 선군정치의 덕이며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이 이룩한 최대의 풍적이 있습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준엄한 투쟁 속에서도 승리의 신실드높이 조국번영의 앞날을 내다보며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줄기차게 투쟁하여 사회주의의 위업을 새로운 단계에로 전진시켰습니다.

사회주의 강국건설은 위대한 수령님의 뜻이었으며

우리 인민의 리상이고 넘원이었습니다.

우리 당은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 때 대한 새로운 경제건설로선을 제시하고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위한 충전군으로 전제 군대와 인민을 조직 동원하였습니다.

인민군대를 선군혁명의 주력군,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 내세우고 인민군대에서 발휘될 혁명적 군인정신을 온 사회가 따라배우도록 한 우리 당의 선군령도에 의하여 혁명적 군인정신을 구현한 강계정신이 창조되고 성강의 봉화가 타올랐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었습니다.

선군혁명령도로 사회주의 강국건설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켜나감으로써 우리 당은 총대를 틀어쥐면 어떤 역경 속에서도 세계적인 강국을 일떠세울 수 있다는 전리를 확증하고 민족의 자주적 발전과 사회주의의 위업수행의 새로운 높은 단계를 열어놓았습니다.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 반항세력과 단독으로 맞서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사회주의의 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온 것은 혁사의 기적이며 이것은 주체사상, 선군정치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동지들!

총결기간 사회주의건설에서 빛나는 승리가 이룩되었으며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년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는 일심단결의 정치사상강국, 불체의 군사강국을 일떠세운 것입니다.

사상과 정치는 사회생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며 따라서 사회주의의 정치사상진지를 둔튼히 다지고 정치사상적 위력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강국건설에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중요한 과업입니다.

조선로동당은 주체의 사상론과 일심단결의 혁명철학, 지주의 정치로선을 구현하여 우리 나라를 존엄높은 사회주의 정치사상강국으로 전면시켰습니다.

총결기간 우리 당은 시종일관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사상교양사업,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워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을 우리 당, 우리 제도가 제일이고 우리 사상, 우리 위업이 제일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지닌 견결한 혁명투사들로 얹어놓았습니다.

제국주의 반동들이 이색적인 부르죠아사상문화를 우리 내부에 들이밀어 혁명대오를 편질화해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지만 당시 품속에서 교양육성된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는 온 사회가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일색화되고 천만군민이 투철한 혁명보위정신과 전결한 사회주의 수호정신을 지니고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위대한 정신력으로 거창한 변혁의 혁사를 창조해나가는 불체의 사상강국으로 위력떨어져 있습니다.

전당과 전체 인민이 수령을 중심으로 사상의 지적으로, 도덕의 지적으로 굳게 통천은 사회의 일심단결을 실현한 것은 총결기간 우리 당이 이룩한 커다란 성과이며 업적입니다.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철학입니다.

장군님께서는 하나의 사상, 하나의 중심에 기초한 일심단결의 사상을 내놓으시고로숙한 정도에 술로 전당과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실현하시였습니다.

우리 당은 『모든 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인민대중에게 의지하여!』라는 구호를 제시하고 전당이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을 위하여 멀사복무하며 인민에게 의지하여 투쟁해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정치, 인민정치에 의하여 당에 대한 인민대중의 신뢰가 두터워지고 사회의 정치적 안정이 보장되었으며 당과 인민대중의 혼연일체가 공고화되었습니다.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사상과 신념, 통지적 사랑과 의리로 굳게 결합되고 온 사회가 서로 둘고 이끄는 화목한 대가정이 되어 생사운명을 같이해나가는 얘기에 우리 식 사회주의의 침모습이 있습니다.

정치사상강국으로서의 우리 조국의 불체의 위용은 주체사상을 구현한 자주정치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여나가고 있는데서 뚜렷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혁명과 전선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인민의 리익과 우리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며 당과 국가활동에서 혁명적 원칙, 자주적 대를 확고히 견지하고 세계정치무대에서 존엄높은 정치강국으로서의 권위와 영향력을 당당히 행사하고 있습니다.

조선로동당은 혁명령도의 전기간 청년중시를 전략적으로 풀어쥐고 청년들을 주체의 협동을 이어나가는 혁명의 계승자를 둔튼히 키움으로써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을 건설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청년 문제 해결의 근본으로 틀어쥐고 청년교양에 큰 힘을 넣었습니다.

청년들을 시대의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청년동맹에 금직급직한 일감들을 맡겨 실천투쟁 속에서 청년들을 억세게 키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당시 막걸준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훌륭히 건설하여 조선청년들의 불굴의 정신력과 자력자강의 힘을 만천하에 과시하고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머리위에 철뢰를 암기했습니다.

주체 혁명의 시원이 열린 백두대지에서 청년전위들이 창조한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은 오늘의 시대정신입니다.

청년들이 당의 권위를 앞장에서 용위하고 당의 부통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는 믿음직한 전위대, 청조의 거인들로 둔튼히 준비된 것은 우리 당의 청년증시사상과 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뜨거운 증시입니다.

세계적인 난문제로 되고 있는 청년문제, 혁명의 계승자 문제를 및나개 해결하고 세상에 자랑할만한 청년강국을

일떠세운 것은 우리 당의 궁지이고 커다란 승리입니다.

청년강국을 건설한 것으로 하여 우리 나라는 활약하고 희망에 넘친 주체의 정치사상강국으로서 그 위용을 더욱 높이 떨치게 되었습니다.

총결기간 조선로동당이 더욱 특출한 성과는 선군혁명로선, 자위의 군사로선을 관철하여 우리 조국을 불체의 군사강국으로 강화발전시켰습니다.

우리 당은 선군혁명의 원리로부터 출발하여 군사강국건설을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중요한 전략적 과업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에 큰 힘을 넣었습니다.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군대는 최고사령관의 유일적령체계가 철저히 서고 당중앙집사부사용위정신, 총통단정신으로 둔튼히 무장한 혁명강군으로, 주체 혁명위업수행의 주력군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인민군대는 최고사령관을 중심으로 혁명적 통지에 의리에 기초하여 굳게 통진 진정한 전우부대, 통지부대로 강화발전되었으며 혁명적 군풍과 강철같은 군기 가 확립되고 정규화적 면모를 훌륭히 갖춘 최정에 전투대으로 위용떨치고 있습니다.

전군에 타오른 백두산영원령 풍속에서 인민군장병들이 김일성·김정일군사사상과 전략전술로 둔튼히 무장하고 높은 실전능력을 지닌 일당백의 싸움군들로 자리났습니다.

우리 인민군대는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그 어떤 제국주의 침략세력도 일격에 격멸소탕할 수 있는 우리 식의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무기질승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인민군대는 혁명적 군인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전구들마다에서 전격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며 불가능을 모르는 혁명강군의 기개와 위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령도밑에 인민내무군은 당에 충실했던 혁명적 무장력으로, 조국과 인민의 믿음직한 보위자로 강성강화되어 수령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고 있습니다.

총결기간 국방공업과 국방과학기술부문에서 세상을 놀래우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국방공업과 국방과학기술부문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당의 국방증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우리 식의 새로운 주체무기개발사업을 힘있게 벌려 국방공업발전에서 최첨단돌파의 전망을 열어놓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국방공업부 국방과학기술부문에서는 정밀화, 경량화, 무인화, 지능화된 우리 식의 첨단무장장비들을 마음먹은 대로 만들 어내고 있습니다.

핵무기연구부문에서는 세차례의 지하핵시험과 첫 수소탄시험을 성공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우리 나라를 세계적인 핵강국의 전렬에 당당히 올려세우고 미제의 피비린내 나는 침략과 핵위협의 핵사에 종지부를 꺼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방공업은 적들의 그 어떤 현대적인 무장장비도 일격에 깨물개비될 수 있는 위력한 무장장비들을 생산보장하는 자립적 국방공업, 혁명공업으로 강화발전되었습니다.

침단수준에 올라선 주체적 국방공업의 위력앞에서 적들은 공포에 떨고 있으며 우리 인민들은 강력한 국방력, 전쟁역제력의 보호를 받으며 삶에 대한 걱정없이 절승의 신심에 넘쳐 사회주의 건설에 떨쳐나서고 있습니다.

온 사회에 총대증시, 군사증시기풍이 확립되고 민간무력의 싸움준비완성에서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온 나라가 군사를 제일국사로 예기고 군사에 모든 것을 복종시켜나가며 전체 인민이 결전의 시각에는 전민항전으로 조국통일성업을 이룩할 결사의 각오로 심장의 퍼를 끌고 있습니다.

로동적원군을 비롯한 민간무력이 자기 도와 군, 자기 향토를 자체로 지킬 수 있는 혁명적 무장력으로 강화되고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가 확립되었습니다.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이 그토록 어려운 조건과 환경 속에서 허리띠를 줄리며 간고분투하여 세계가 경탄하는 불체의 군사강국을 건설한 것은 크나큰 자랑이고 중지이며 이것은 조국의 강성번영과 주체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확고한 군사적 담보를 마련하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확보하였습니다.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이 훌륭히 건설됨으로써 우리 혁명의 주체적 힘에 비할바없이 강화되었습니다.

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인민, 강력한 총대를 둘러쥔 인민은 가장 위력한 혁명의 주체로 되는것이며 이런 인민의 성스러운 위업은 평승불패입니다.

총결기간 경제건설과 문화건설에서도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전략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자립적 민족경제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둔튼히 다지고 경제강국건설의 도약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가 적극 추진되었습니다.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면에서 계속

자립경제의 원료, 연료, 동력기지가 강화되고 중요부문들에 주체적인 생산공정들이 갖추어졌으며 공업의 부문구조가 더욱 개선되었습니다.

안면 청년발전소와 회천발전소,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비롯한 대규모, 중소규모의 발전소들이 건설되고 전망이 좋은 편광, 광산들이 개발되었습니다.

주체 철생산체계가 확립되고 주체비료, 주체비날론생산공정이 꾸려졌으며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 새로운 운생산기지들이 일떠서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 속에 풍장, 기업소들에서 설비와 생산공정의 현대화가 적극 추진되고 인민경제의 전반적 기술경쟁력이 높아졌습니다.

나라의 경제발전을 담보하는 현대적인 기계제작기지들과 전자, 자동화요소와 기구생산기지들이 꾸려져 우리의 공업이 첨단설비들을 자체로 만들어내는 높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제신발전에서 혁신적성과가 이룩되었으며 윤수, 전재를 비롯한 여러 부문의 생산공정들과 기술창비, 운송수단들이 더욱 현대화되었습니다.

총결기 간 우리 당은 인민생활문제를 제일중대사로 내세우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쟁에 큰 힘을 냉았습니다.

농업부문에서 종자혁명과 감자농사혁명, 두별농사와 과학농사의 열풍이 일어나고 32만여평보의 토지가 사회주의 조선의 땅답게 정리되었으며 1만여km의 자연흐름 물길이 건설되어 암류생산을 늘릴 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었습니다.

당의 평도밀에 전국도처에 일떠세운 현대적인 축산기지들과 양어장, 낚세온실과 버섯생산기지, 드넓은 청춘파원들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귀중한 밑천입니다.

수산부문에서 황금해의 새 역사를 창조할 때 대한 당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벌어져 수산업발전의 물파구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경공업부문 공장, 기업소들에서 기술개관과 원료, 재료의 국산화사업이 적극화되어 질좋은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의 용대한 건설구상을 따라 주체적건축사상이 구현된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많이 일떠서 사회주의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토대가 튼튼히 다져졌습니다.

사회주의문화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당의 과학기술증시로선이 판결되어 나라의 경제형편이 어려운 속에서도 우수한 과학기술력이 자라나고 과학연구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가 강화되었으며 과학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이 이룩되었습니다.

우리의 미더운 과학자, 기술자들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방해책동을 짓부시고 핵심기초기술과 우주기술을 비롯한 철단과학기술분야에서 세계를 놀라우는 기적적인 성과들을 이룩함으로써 당의 물속에서 자라난 조선지식인의 슬기와 재능을 파시하였습니다.

역사적인 당 제7차대회를 앞두고 주체조선의 장한 영웅들은 우리와 학자들은 온 세계가 지켜보는 속에서 지구판축위성 «팡명성-4»호발사의 대성공을 이룩함으로써 우리 국가의 권위와 위대한 우리 인민의 불굴의 기개를 높이 떨쳤습니다.

총결기 간 우리 당의 교육증시사상과 로선에 따라 전반적 12년제의 무교육이 실시되고 원격교육체계가 확립된 것을 비롯하여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과학기술증당이 21세기 전민학습의 대전당, 최신과학기술보급의 중심지점으로 훌륭히 건설되고 전국도처에 미래원과 과학기술보급실들이 꾸려져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의 빙마루에로 비약해나갈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당의 주체적보건사상과 정책에 의하여 평양산원 유헌증양연구소와 육류이동병원, 유행병과 병원을 비롯한 현대적인 의료기관들이 꾸려지고 전국적인 면역의료봉사체계가 세워져 인민들에 대한 의료봉사가 개선되었습니다.

당의 체육증시정책에 따라 체육열풍이 일어나고 체육시설들이 개건되었으며 나라의 체육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미더운 체육인들은 윤리경기대회와 세계선수권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서 주체조선의 영예를 떨칠으로써 인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습니다.

총결기 간 인민군에서 선군문화의 본보기가 창조되고 우리 국가의 자랑인 공훈국가합창단을 비롯한 많은 예술단체들이 혁명적진군의 나원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대부분에 술영화 «민족과 운명»과 대침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이 주체문화에 술의 성공작으로, 세계적인 걸작으로 창작되고 군인들과 근로자들속에서 군중문화에 춤활동이 활발히 벌어져 온 사회에 혁명적 맛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출판보도부문의 기자, 편집원들과 언론인들은 당정책의 충직한 대변자, 견결한 응호자, 힘있는 선전자로서의 사명을 자각하고 혁명의 봉대로 당의 사상과 위업을 충실히 밟았습니다.

전국적범위에서 도시와 농촌, 거리와 마을을 사회주의선경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투쟁이 벌어졌으며 여러 명승지들과 문화정서 생활기지들이 훌륭히 꾸려져 인민들의 문화생활조건과 환경이 개선되었습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위대한 주체사상과 당의 선군령도를 충정으로 받들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과 애국의 열정을 발휘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는 천만군민의 고귀한 피와땀이 스며있는 소중한 민족의 재부이며 부강조국건설과 사회주의위업의 환성을 담보하는 고귀한 밀천으로 됩니다.

### 3) 혁명위업의 빛나는 계승

동지들!

총결기 간 우리 당과 인민이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이룩한 모든 승리와 성과의 근본비결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님들의 혁명을 계승발전시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대양궁전을 주제의 최고성지로 더욱

승용하게 꾸리고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 수령님들의 통상과 태양상을 정중히 모시도록 함으로써 수령님들께서

언제나 우리 인민들과 함께 계시며 우리 인민과 전보적인 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시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종관철을 위한 투쟁을 주선으로, 생명선

# 제7차대회에서 한 사업총화 보고

위대한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수령영생의 신념을 안겨주시고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도록 하시였습니다.

조선로동당은 확고부동한 혁명신념과 도덕의리에 기초하여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계승발전시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대양궁전을 주제의 최고성지로 더욱

승용하게 꾸리고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 수령님들의 통상과 태양상을 정중히 모시도록 함으로써 수령님들께서

언제나 우리 인민들과 함께 계시며 우리 인민과 전보적인

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시도록 하였습니다.

주체사상의 가치, 선군의 가치높이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및내이는 투쟁과정에 우리 당과 인민은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수행에서 수령이 결정적 역할을 하며 수령의 위업계승문제가 혁명의 운명과 인민의 생태를 결정하는 근본문제이라는 고귀한 철리를 뚜렷이 확증하였습니다.

수십년상에 걸쳐 승리의 한길을 걸어온 조선로동당은 수령복이 있는 존엄높고 영광스러운 당이며 수령의 사상과 행동을 빛나게 계승해나가는 조선로동당은 영원히 펼승불패입니다.

## 2. 사회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실현하는데서 오늘 우리 앞에 나서는 기본투쟁과업은 사회주의강국건설 위업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강국은 국력이 강하고 끝없이 통성번영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럽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천하제일강국입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구상하시고 만기기를 미련하여 주신 강대한 사회주의국가건설 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제국주의와의 치열한 대결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수행되는 사회주의위업은 정치와 군사, 경제와 과학기술,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강국의 정표를 갖춘 국가건설을 통해서만 승리적으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은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 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적단계이며 그것은 사회주의의 기초를 다지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해나가는 과정으로 됩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높은 목표를 실현해나가는 투쟁 속에서 사회주의완전승리를 담보하는 정치군사적력량과 경제기술적, 문화적기초가 튼튼히 마련되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이 절연적으로 발휘되어 됩니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는 우리 당의 최고

강령입니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는 일찌기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제시하시고 실현하여오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의 혁명계계승이며 새로운 단계에 의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는 우리 당의 최고

강령입니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는 일찌기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제시하시고 실현하여오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의 혁명계계승이며 새로운 단계에 의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는 우리 당의 최고

강령입니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는 일찌기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제시하시고 실현하여오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의 혁명계계승이며 새로운 단계에 의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는 우리 당의 최고

강령입니다.

온 사회의 김일성-

#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한 당 중앙위원회 보고

## 3면에서 계속

우리는 사대와 외세의 존을 배격하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지하여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밀고나가야 하며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도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여 우리의 힘으로 이룩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건설의 총로선과 자강령제 일주의를 항구적인 전략적 목표로 들어쥐고 사회주의의 강국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며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 확하는 역사적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여야 하겠습니다.

## 2) 과학기술강국건설

동지들!

과학기술강국은 사회주의 강국건설에서 오늘 우리가 선차적으로 점령하여야 할 중요한 목표입니다.

현시대는 과학기술의 시대이며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은 나라의 종합적 국력과 지위를 규정하는 정표로 됩니다.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원이며 사회발전의 강력한 후두로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의 경제기술적봉쇄를 짓부시고 우리의 자강력을 급격히 증대시키며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키자면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들어쥐고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과학기술강국건설에 막차를 가하여 뛰어온 기간에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며 과학으로 홍하는 시대를 열고 사회주의건설에서 핵

정책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과학기술강국은 나라의 전반적인 과학기술이 세계 첨단수준에 올라선 나라, 과학기술의 주도적 역할에 의하여 경제와 국방,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부문이 급속히 발전하는 나라입니다.

과학기술강국건설의 목표는 가까운 앞날에 종합적 과학기술력에서 세부적으로 앞선 나라도의 대열에 당당히 들어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남들이 걸은 길을 따라만 갈것이 아니라 우리 과학자들의 애국충정과 우리 인민의 슬기와 민족적 자존심을 뽐내면서 새단장을 합니다.

과학기술부문에서 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여야 하겠습니다.

첨단돌파전은 현대 과학기술의 명맥을 확고히 물려주고 과학기술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앞서나가기 위한 사상전, 두뇌전입니다.

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여야 나라의 과학기술전반을 빨리 발전시키고 지식경제의 토대를 구축해나갈 수 있습니다.

첨단과학기술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합니다.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을 비롯한 핵심기초기술과 새 재료기술, 새 에너르기 기술, 우주기술, 해기술과 같은 중심적이며 견인력이 강한 과학기술분야를 주

타격방향으로 정하고 힘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이미 일정한 토대가 있고 전망이 확고한 연구대상들에 힘을 넣어 세계계권을 휘며 그 성과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야 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우주강국건설업적을 만년대로 하여 우주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키며 첨단기술의 접합체이며 정수인 실용성들을 더 많이 제작, 발사하여야 합니다.

기계공학, 금속공학, 열공학, 재료공학을 비롯한 중요부문 기술공학들을 빨리 발전시키고 그 성과를 여러 경제부문에 적극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초과학은 과학기술강국을 떠받드는 주축입니다.

기초과학이 듣는 데에 나라의 과학기술이 공고한 토대 위에서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과 같은 기초과학부문에서 과학기술발전의 원리적, 방법론적 기초를 다져나가면서 세계적인 연구성과들을 내놓아야 합니다.

과학기술의 종합적 발전 주체와 사회경제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경제과학을 개척하고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까운 앞날에 전반적인 과학기술분야에서 세계를 더디고 올라설 수 있다는 배심을 가지고 첨단돌파의 기적들을 떤여나가야 합니다.

과학기술이 경제강국건설에서 기판자의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과학연구부문에서는 과학기술로 경제발전의 길을 열고 과학기술로 경제를 이끌어나가야 한다는 판점과 힘

장을 가지고 우리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학기술적방안과 실행대책을 명확히 세우고 실행해나가야 합니다.

에너르기와 물질재, 화학재, 방법론적 기초를 다져나가면서 경제상황에 이바지하도록 합니다.

나라의 긴장한 전기문제를 해결하며 에너르기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경제발전과 경제생산을 확장하는 힘을 넣어야 합니다.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주체 철생산기술을 완성하며 수입에 의존하는 원료, 자재, 설비들을 국산화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더그쳐야 합니다.

농업생산을 과학화, 공업화하며 경공업부문을 현대화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적극 해결하여 인

민 생활상에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과학기술과 경제의 일체화를 다그치고 나라의 경제를 현대화, 정보화하는데서 과학기술부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를 과학기술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기 위하여서는 인재를 중시하며 전민 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여야 합니다.

인재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과학기술강국을 떠나고나가 과학기술인재화를 꾸리고 그들의 연구개발 능력을 새롭게 육성해나갈 수준에 올려세워야 합니다.

국가과학기술발전전략에 따라 과학기술부문의 연구 일군수를 가까운 기간에 3배 이상 늘여야 합니다.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기술집약적 산업과 현대화된 경제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관리인재들을 계획적으로 키우며 공장, 기업소들에서 과학기술개발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전민 과학기술인재화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대 학종업 정도의 지식을 소유한 지식형 근로자로, 과학기술 발전의 담당자로 준비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전민 학습의 대전당이며 다기능화된 과학기술보급의 중심기지인 과학기술전당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보급망을 형성하여 새로운 과학기술자료들이 중앙에서부터 달단에 이르기까지 물이 흐르듯이 보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기관, 기업소, 공장, 협동농장들에서 과학기술전당과 양으로 연결된 과학기술보급실을 잘 꾸려놓고 운영을 정상화하여 근로자들의 과학기술지식수준을 높이며 그들이 해당 단위의 기술발전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국가적인 작전과 지도 판리를 바로하고 과학연구개발체계를 정연하게 세우며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국가적 보장사업을 잘하여야 하겠습니다.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작전과 지도에서 전략적 집중성을 보장하며 과학연구기관들이 연구사업을 제각각 분산적으로 하는 현상을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첨단돌파과제, 첨단기술산업화 계획을 비롯한 국가의 전략적 목표 실현을 위한 계획들을 바로세우고 강하게 집행하여야 합니다.

과학기술과 경제의 일체화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 작성과 수행정형을 국가적으로 정장지도하고 추진하는 제도와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과학기술의 보급과 도입사업을 잘하며 모든 부문과 단위들이 새 기술개발과 도입에 철저한 리해관계를 가질 수 있게 경제판리방법을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다른 나라의 선진 과학기술 성과들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제때에 받아들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과학연구개발체계를 정비 강화하여야 합니다.

전문 과학기술 연구기관들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비하고 새로운 첨단 과학기술부문의 연구기관들을 조직하여 핵심적인 과학기술연구에 중심을 두고 활동하도록 하며 용융기술연구는 해당 성, 중앙 기관과 공장, 기업소의 연구개발 단위에서 맡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른 나라의 선진 과학기술 성과들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제때에 받아들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과학연구개발체계를 정비 강화하여야 합니다.

전문 과학기술 연구기관들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비하고 새로운 첨단 과학기술부문의 연구기관들을 조직하여 핵심적인 과학기술연구에 중심을 두고 활동하도록 하며 용융기술연구는 해당 성, 중앙 기관과 공장, 기업소의 연구개발 단위에서 맡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른 나라의 선진 과학기술 성과들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제때에 받아들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늘여야 합니다.

국가에 산전부문에서 과학기술발전사업비의 몫을 체계적으로 늘리며 지방에 산파과 공장, 기업소들의 기업소기금을 해당 단위의 과학기술발전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과학기술부문과 대학들에서 첨단기술체계를 개발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공장, 기업소들이 국가중점기술개발사업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시, 군들에서 자기 지역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과학기술적으로 펴밀어나갈 수 있는 연구역량과 개발단위들을 꾸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과학기술부문을 대한 국가적 투자를 늘여야 합니다.

국가에 산전부문에서 과학기술발전사업비의 몫을 체계적으로 늘리며 지방에 산파과 공장, 기업소들의 기업소기금을 해당 단위의 과학기술발전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대학들이 기초 과학연구와 첨단 과학기술개발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공장, 기업소들이 국가중점기술개발사업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과학기술부문과 대학들에서 첨단기술체계를 개발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공장, 기업소들이 국가중점기술개발사업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과학기술부문과 대학들에서 첨단기술체계를 개발하고 모든 부문과 단위들이 새 기술개발과 도입에 철저한 리해관계를 가질 수 있게 경제판리방법을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다른 나라의 선진 과학기술 성과들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제때에 받아들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경제는 과학기술부문과 대학들에서 첨단기술체계를 개발하고 모든 부문과 단위들이 새 기술개발과 도입에 철저한 리해관계를 가질 수 있게 경제판리방법을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나라의 경제는 과학기술부문과 대학들에서 첨단기술체계를 개발하고 모든 부문과 단위들이 새 기술개발과 도입에 철저한 리해관계를 가질 수 있게 경제판리방법을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나라의 경제는 과학기술부문과 대학들에서 첨단기술체계를 개발하고 모든 부문과 단위들이 새 기술개발과 도입에 철저한 리해관계를 가질 수 있게 경제판리방법을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나라의 경제는 과학기술부문과 대학들에서 첨단기술체계를 개발하고 모든 부문과 단위들이 새 기술개발과 도입에 철저한 리해관계를 가질 수 있게 경제판리방법을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나라의 경제는 과학기술부문과 대학들에서 첨단기술체계를 개발하고 모든 부문과 단위들이 새 기술개발과 도입에 철저한 리해관계를 가질 수 있게 경제판리방법을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올라섰지만 경제부문은 아직 용당한 높이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전반을 놓고 볼 때 첨단수준에 올라선 부문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문은 한심하게 뒤떨어져 있으며 인민 경제부문들이 균형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선행부문이 앞서나가지 못하여 나라의 경제발전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강국건설에 막차를 가하여 국가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든든히 쌓고 인민생활에서 전환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하는 경제강국은 자립성과 주체성이 강하고 과학기술을 기본생산력으로 하여 발전하는 나라입니다.

국방건설과 경제건설, 인민생활에 필요한 물질적 수단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하며 과학기술과 생산이 일체화되고 첨단기술산업이 경제장성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자립경제강국, 지식경제강국이 바로 사회주의 경제강국입니다.

경제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우리 당의 전략적 선언은 차지자장의 정신과 과학기술을 끌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민족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하여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체계를 확고화한 주체적립장에서 우리 인민의 자주정신과 창조정신, 과학기술의 위력에 의지하여 물어나가는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함으로써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부정적 행동을 짓부시고 경제강국건설에서 질적인 비약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전력경제체계를 확고화한 경제체계를 확고화하는 것은 5개년전략수행의 선결 조건이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의 축복입니다.

5개년전략수행기간 당에서 제시한 전력생산목표를 반드시 절령하여야 합니다.

전력공업부문에서 첨단소들을 불비한 생산공정과 시설들을 정비보강하고 기술개선을 다그쳐 첨단설비의 효율을 높이고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며 전력생산원기를 체계적으로 낮추어야 합니다.

전력공업부문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 자금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생산원전 기기를 효과있게 리용하는 것은 긴장한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입니다.

국가적인 통합전력관리체계를 구성하고 실속있게 운영하며 교차생산을 함께 하여야 합니다.

송배전망을 개선보수하고 전압단계와 턱률을 높여 전력의 도중 손실을 줄여이며 송전계통을 점차 유연교류전체통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풍부한 동력자원에 의지하는 전력생산 기지들을 대체적으로 일대세워야 합니다.

지금 건설중에 있는 발전소들의 조업기일을 앞당기고 대규모의 단관발전소를 최단기간에 건설하여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동시에 밀고나가 전력문제 해결의 전망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도시, 군들에서 종소형발전소들을 실용성있게 건설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풍력과 조수력, 생물질과 태양에너지에 의한 전력생산을 늘이며 자연에 네르기의 리용법을 계속 확대하여야 합니다.

석탄공업과 금속공업, 철도운수부문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석탄공업부문에서 매장량이 많고 체굴조건이 유리한 탄광들에 투자를 집중하고 중간두성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탄광에서 능률적인 채탄방법을 받아들이고 쟁내작업의 종합적 기계화, 운반의 다양화를 적극 실현하며 선란공정을 완비하여 질좋은 석탄을 소비단위들로 보내주어야 합니다.

람사와 물줄을 앞세워 확보한

#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한사업총화 보고

4 면에서 계속

화학공업부문에서 생산설비와 계통을 체계에 정비보수하고 생산능력을 확장하며 촉매의 국산화를 실현하여 주체비료와 비닐론, 기초화학제품생산을 정상화하여 합니다.

전력소비를 줄이고 공해를 없애는 방향에서 화학공업의 기술개선을 다그치며 국내자원에 의거하는 새로운 화학제품생산기지들을 전망성있게 건설하여야 합니다.

전략수행기간 속한가스화에 의한 탄소하나화학공업을 창설하고 갈탄을 미용하는 속한건류공정을 꾸리며 화망초를 출발원으로 하는 탄산소다공업을 완비하여 메타놀과 합성연유, 합성수지 등 비롯한 화학제품생산의 주체화를 둘은 수준에서 실현하여야 합니다.

건설부문에서 우리 당의 주체적건축미학사상을 지침으로 하여 선 편리, 선 미학성의 원칙이 구현된 만년대제의 기념비적건축물을 최상의 수준에서 최대의 속도로 일떠세워야 합니다.

중앙과 지방의 설계력량과 건설력량을 강화하고 설계수단과 건설장비, 기공구들을 현대화하며 전식공법을 정려하고 명에네트기와 평란소건축기술, 지능건축기술을 널리 받아들이야 합니다.

전진공업부문에서 광장, 기업소들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건재생산을 전문화, 전통화하며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건재의 다양화, 다종화, 국산화를 실현하여야 합니다.

농업과 수산업, 경공업부문에서 생산돌격전을 힘있게 벌려 인민생활향상의 돌파구를 열어놓아야 하겠습니다.

농업부문에서는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과학농사영농을 일으켜 계획한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하여야 합니다.

우량품종들을 더 많이 유통하여 지방별, 품종별수요에 맞게 종자생산을 따라세워야 합니다.

지대적특성과 자연기후조건에 맞게 작물과 품종배치를 바로하고 농작물비례판례에서 과학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키며 선진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여야 합니다.

유기농법을 장려하고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확립할 때 대한 당의 당침을 일관성있게 관찰하여야 합니다.

축산부문에서 집집승종자와 농민들을 해결하고 사양판리를 과학적으로 하여 수의방역대책을 철저히 세워 축산물생산을 늘려야 합니다.

풀썩는집집승기르기를 군중적운동으로 벌리고 협동농장들의 공동축산과 농촌세대들의 개인축산을 발전시키며 어디서나 축산열풍이 일어나게 하여야 합니다.

과수업의 집약화, 과학화수준을 높여 과일생산을 늘리며 전국도처에 건설한 날세온실과 버섯공장들이 생산을 정상화하여 인민들이 먹을 보게 하여야 합니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본격적으로 내밀어 빠른 기간에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60~70%수준에 올려세울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농기계공장들에서 설비와 생산공정을 현대적으로 개선하고 농기계들과 부속품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하여 사회주의업동반마다 우리가 만든 농기계들의 동음이 높이 울리게 하여야 합니다.

협동농장들에서 농기계의 가동률을 높이고 영농공정의 기계화를 통이 크게 밟고나가야 합니다.

수산전선에서 비약을 일으켜 황금해의 력사를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당이 제시한 수산물생산목표를 점령하여야 합니다.

과학수산이자 물고기잡이 실적입니다.

수산단위들에서 고기배와 어구를 현대화하고 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하여 기상예보, 해상지휘, 물고기 가공제작과 설비 및 전력감시체계, 배수리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하며 사천 바다를 비우지 말고 적극적인 어로전을 벌리 물고기대풍을 애인와야 합니다.

양어에서 토로절약형, 물질약형방법을 받아들이고 다양화, 그물우리양어를 널리 전개하며 바다가 양식면적을 늘리고 양식방법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경공업부문에서는 공장들을 지식경제시대의 본보기 공장으로 꾸리고 원료, 자재의 국산화를 실현하며 생산을 활성화하여 소비품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보장해야 합니다.

새 제품개발과 질제고에 힘을 넣어 세계적수준의 다양한 경공업체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

지방에서 떡사적인 창성련식회의정신을 구현하여 자체의 힘으로 살림살이를 꾸려나가기 위한 작전을 주도세밀하게 하고 지방경제를 특색있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예비와 가능성은 남김없이 탐구동원하고 기술혁신운동과 사회주의경쟁을 활발히 벌려 생산적양상을 일으켜야 합니다.

국토관리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산림복구전투를 년차별계획대로 근기있게 내밀어 나라의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켜야 합니다.

양묘장을 실리있게 꾸리고 나무보생산을 앞세우며 군대와 인민이 모두 페쳐나 나무심기와 비례판리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책임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환경보호사업을 개선하여 나라의 자연을 보호증식시키며 대기와 강화천, 바다오염을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대외무역에 신용을 지키고 일번도를 없애며 기공품수출과 기술무역, 봉사무역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에서 무역구조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합영, 합작을 주체적립장에서 실리있게 조직하여 선진기술을 받아들이고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제개발구들은 유리한 투자환경과 조건을 보장하여 그 운영을 활성화하여 관광을 활발히 조직하여야 합니다.

경제강국건설에서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하여서는 국가의 경제조직자기능을 강화하고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식 경제판리방법을 전면적으로 확립하여야 합니다.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전략적판리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경제사령부인 내각은 요령주의, 형식주의, 폐배주의와 단호히 결별하고 당과 인민앞에 경제사업을 책임진 주인답게 당의 로선과 정책에 기초하여 국가경제발전전략과 단계별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그 집행을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빙틈없이 짜고들며 광장을 끌 때까지 완강하게 내밀어야 합니다.

내각은 중실고리에 력량을 질증하면서 경제전반을 활성화해 나가는 방법으로 경제사업을 작전하고 지원하여야 합니다.

내각은 경제사업, 내각증심제의 요구대로 나라의 전반적경제사업을 내각에 집중시키고 모든 경제부문과 단위들이 내각의 통일적인 작전과 지원에 따라 움직이는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야 합니다.

사회주의기업책임판리체계를 바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은 사회주의기업책임판리체의 요구에 맞게 경영전략을 잘 세우고 기업활동을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하여 생산을 정상화하고 확대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기업체들이 부여된 경영권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충분히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경제는 인민의 행복을 창조하는 거창하고 보람찬 사업이며 그 전망은 탄본적입니다.

우리는 최후승리에 대한 확신과 들판한 배심을 가지고 대담한 공격전, 전인민적인 결사전을 벌려 기어이 인민의 만복이 꽂혀나는 사회주의경제강국을 일떠세워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건사업을 발전시켜 인구의 평균수명과 전연평생양장을 비롯한 보건지표를 세계선진수준에 올려세우며 인민들에게 보다 위생문화적인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건사업을 발전시켜 인구의 평균수명과 전연평생양장을 비롯한 보건지표를 세계선진수준에 올려세우며 인민들에게 보다 위생문화적인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보건부문에서는 위생방역기관들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전염병을 막기 위한 사업에 힘을 집중하며 예방원인의 복종사를 막아 벌리며 병결린물을 극력 낫추어야 합니다.

의사당당구역체계를 강화하여 담당의사들이 가정제세를 파악하고 현장에 들어가 주민들과 근로자들의 연령별, 체질적특성에 맞게 각종 질병들에 대한 예방책을 세우고 진강판리사업을 책임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의료봉사의 질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현대의 학발전추세에 맞게 앞선 진단, 치료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신의학과 고려의학을 밀접히 결합시키며 민거리의료봉사체계를 완비하고 구급의료봉사를 비롯한 의료봉사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여야 합니다.

의학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고 보건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보건실천에서 절차화하여 요구되는 새로운 의학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고 고려의학을 과학화하여 최신의 학파학기술을 더욱 원비하여야 합니다.

제약공장과 의료기구용장들을 현대화하고 효능높은 의약품과 침단의료설비, 기구, 의료용소모품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군인민병원들을 해당 지역의 의료봉사자점검에 꾸리고 리민병원, 진료소들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잘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적으로 풀보도록 하여야 합니다.

체육강국을 건설하는 것은 사회주의문화강국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파업입니다.

체육강국은 체육으로 명성을 떨치며 체육으로 흥하고 장대해지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체육강국건설을 다그쳐 국력을 강화하고 민족의 승기와 기개를 키우며 주체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세계에 빛내여야 합니다.

전문체육기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기 위해 체육기구용장들을 확장하여야 합니다.

체육부문에서는 훈련을 강화하고 우리식의 우월한 경기전법들을 완성하여 국제경기들에서 영웅조선의 세로운 체육신화를 펼쳐나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체육부문에서는 학술체육과 체육체육을 활발히 벌여 온 나라가 체육영기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체육부문에서는 훈련을 강화하고 우리식의 우월한 경기전법들을 완성하여 국제경기들에서 영웅조선의 세로운 체육신화를 펼쳐나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체육부문에서는 훈련을 강화하고 우리식의 우월한 경기전법들을 완성하여 국제경기들에서 영웅조선의 세로운 체육신화를 펼쳐나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체육부문에서는 훈련을 강화하고 우리식의 우월한 경기전법들을 완성하여 국제경기들에서 영웅조선의 세로운 체육신화를 펼쳐나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체육부문에서는 훈련을 강화하고 우리식의 우월한 경기전법들을 완성하여 국제경기들에서 영웅조선의 세로운 체육신화를 펼쳐나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체육부문에서는 훈련을 강화하고 우리식의 우월한 경기전법들을 완성하여 국제경기들에서 영웅조선의 세로운 체육신화를 펼쳐나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체육부문에서는 훈련을 강화하고 우리식의 우월한 경기전법들을 완성하여 국제경기들에서 영웅조선의 세로운 체육신화를 펼쳐나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체육부문에서는 훈련을 강화하고 우리식의 우월한 경기전법들을 완성하여 국제경기들에서 영웅조선의 세로운 체육신화를 펼쳐나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체육부문에서는 훈련을 강화하고 우리식의 우월한 경기전법들을 완성하여 국제경기들에서 영웅조선의 세로운 체육신화를 펼쳐나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체육부문에서는 훈련을 강화하고 우리식의 우월한 경기전법들을 완성하여 국제경기들에서 영웅조선의 세로운 체육신화를 펼쳐나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체육부문에서는 훈련을 강화하고 우리식의 우월한 경기전법들을 완성하여 국제경기들에서 영웅조선의 세로운 체육신화를 펼쳐나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있게 교육내용을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하여야 합니다.

부문별, 지역별 종합대학과 직업기술대학들에서 해당 분야의 능력있는 인재들을 키워낼 수 있게 교육강령을 바로세우고 집행해 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가르쳐주시는 교수방법을 모든 교육단계에서 철저히 구현하여 기초교육과 전공교육, 과학기술교육을 지식전수식이 아니라 학생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는데로 확고히 지향시켜나가야 합니다.

학생들의 학습열의를 높일 수 있도록 실력평가방법을 개선하여 대학졸업생들이 해당 전공분야의 현장에서 일정한 기간 일하면서 전문가자격과 기술자격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교육조선과 환경을 일신시켜 교육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세워제작수준에 올려세워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교육을 중시하고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늘리며 전사회적으로 교육부문을 적극화와 함께 교육부문에서 수준을 높여나 새 세기 영화혁명의 불길을 일으킴으로써 문학에 술의 전성기를 열어나가는데서 선도적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부대에 술부문과 미술부문에서는 당의 문예사상과 리론, 미학판이 구현되고 우리 인민의 미감에 맞으며 인민들이 좋아하는 명작들을 창작하여야 합니다.

군중문화에 술활동을 활발히 벌려 예술의 대중화를 높여 수준에서 실현하며 사회주의건설의 물질은 전투장마다에서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가 힘있게 울려퍼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체동을 짓부시고 우리 사회주의문화와 생활양식을 철저히 고수하여야 합니다.

제국주의사상문화는 사람들의 진전한 정신을 미비시키고 사회주의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독소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의 청탁을 거절하고 악랄한 사상문화적침투체동을 혁명적인 사상문화공세로 짓부시며 우리 내부에 이색적인 사상문화와 변태적인 생활양식이 절대로 침습하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우리의 사회주의 민족문화가 제일이라는 높은 궁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의 역할을 귀중히 여기며 적극 살려나가도록 함으로써 온 사회에 민족적정신과 이롭답고 전진한 사회주의 생활기庸이 차넘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사회적으로 도덕기강을 바로세워야 하겠습니다.

도덕기강이 해이되면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병들게 되고 사회주의사상과 제도, 전통을 고수할 수 없습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속에서 도덕교양을 강화하여 혁명선배를 존대하고 스승과 웃사람을 존경하며 동지를 사랑하고 가정과 집단의 최우를 도모하는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꽂펴나도록 하여야 합니다.

누구나 사회공동도덕과 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고 특히 언어생활을 고상하고 문명하게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확고한 풍조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문화강국의 제모에 맞는 현대적인 문화정서 생활기지들을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일떠세워야 하겠습니다.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 국장과 문화회관, 체육관을 비롯한 문화체육시설과 편의봉사시설들을 최상

#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한 사업총화 보고

5 면 예서 쟁속

인민정권기관들은 인민들이 사회주의헌법을 비롯한 국가의 법규법과 규정들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준법교양파 법적통제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당과 인민대중의 혼연일체를 더욱 둔튼히 다져나가야 합니다.

당과 인민대중의 혼연일체는 우리 당의 생명력의 원천이고 사회주의의 불멸성의 담보입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일성-김정일주의로 토론히 무장하고 당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단결하며 오직 우리 당밖에는 모른다는 투철한 신념을 지니고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청년들이 일심단결의 전통을 굳건히 이어 우리 당을 온 알장에서 결사옹위하며 당의 혁명위업수행에 서 척후대의 영웅적기상을 떨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 근로단체조직들과 청진기관들은 모든 사업을 일심 단결을 강화하는 데 지향시키고 봉종식켜나가야 합니다.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인민을 위하여 멀사복무하며 인민을 믿고 인민에게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원칙을 결지하여야 합니다.

당일군들은 사람의 운명문제, 정치적생명과 관련된 문제들을 심중히 대하며 사탕들이 아파하는 문제, 사업과 생활에서 걸리고 있는 문제들을 책임적으로 풀어주어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더욱 둔튼히 묶어세워야 합니다.

사법검찰, 안전보위기관 일군들은 우리 사회주의를 내부로부터 왜해시키려는 적들의 온갖 책동을 제때에 적발분쇄하여 우리의 사상과 제도, 계급진지와 일심단결을 굳건히 수호하여야 합니다.

선군혁명로선을 항구적인 전략적로선으로 풀어쥐고 군사강국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제국주의자들과의 장기적이고 침에 대한 대결속에서 사회주의의 승리를 이룩해나가면서 선군의 가치를 변함없이 높이 들고 혁명무역, 국방력강화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혁명무역, 국방력의 강화발전이자 우리 당의 강화발전이며 나라의 존엄과 인민의 운명은 혁명무역, 국방력에 의해 담보됩니다.

인민군대는 조선로동당의 군대이며 사회주의수호전의 결사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풍랑대입니다.

전군김일성-김정일주의화는 항구적으로 풀어쥐고나가야 할 군�建설의 쟁적임무입니다.

전군을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군대를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군대, 당의 군대로, 그 어떤 강적도 타승할 수 있는 무적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둔튼히 준비시켜야 합니다.

당의 렇도는 인민군대의 생명이며 인민군대안에는 오직 당의 사상과 숨결만이 맥박쳐야 합니다.

인민군장병들은 그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 도당중양파 영원히 사상과 뜻, 운명을 같이 하는 진정한 혁명동지, 혁명전우가 되어야 하며 당중양을 절사보위하는 천겁만겁의 성세가 되고 방폐가 되어야 합니다.

인민군대안에 당의 명령일하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며 당의 명령지시를 무조건 결사관철하는 혁명적군풍을 펼쳐야 세워야 합니다.

인민군대에서는 정치사상강군화, 도덕강군화를 쟁기 등으로 풀어쥐고 당정책사업을 강화하여 전군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일색화되고 불굴의 신념과 도덕의리로 굳게 몽환 전위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인민군대는 사회주의조국을 철벽으로 지키며 당의 전략적의도에 맞게 전쟁준비완성을 총력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인민군대에서는 혼련의 실전화, 과학화, 현대화를 기본종자로 풀어쥐고 백두산훈련을 세차게 일으켜 모든 군인들을 우리 당의 군사전략사상과 전법으로 무장하고 극악한 조건과 환경에서도 전투일투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일당백의 싸움군으로 더욱 둔튼히 준비시켜야 합니다.

인민군대에서는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제와 남조선호전세력의 무모한 전쟁도발책 등에 대처하여 고도의 격동태세를 견지하며 적들이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하고 조국통일의 혁사적위업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인민군대에서는 항일유격대식부대지휘관리방법을 구현하여 칼날같은 군기를 세우고 정규화적면모를 철저히 갖추며 군인생활문제를 물기 위한 사업에서 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오중흡7현대정기행취운동과 근위부대운동을 힘있게 벌려 모든 부대들을 항일의 7편대로, 전희의 근위부대들로 만들어야 합니다.

인민군대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주역군, 둘째대의 위력을 계속 높이 펼쳐야 합니다.

조선인민내무군은 수령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의 칼을 더욱 날카롭게 벼려야 합니다.

조선인민내무군은 엄격한 명령지휘체계와 강철같은 군기를 확립하고 당과 사회주의제도, 인민의 생명체산

을 노리는 계급적원쑤들과 적대분자들의 춤동을 맹아 단계에서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려야 합니다.

인민보안기관들의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고 사건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 자기 지역과 판내를 사건사고가 없는 안정지역, 안정판내로 만들어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하여야 합니다.

국방공업발전에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국방공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인민의 운명, 국가의 안전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입니다.

세계적으로 무장장비가 비상히 현대화되어 전쟁양상이 달라지고 조선반도의 정세가 날로 첨예화되고 있는 현실은 무장장비현대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부문에서는 국방공업의 주체성과 자립성을 강화하고 현대화, 과학화수준을 높이미며 그에 토대하여 조국통일대전의 전군장을 열어제기 정밀화, 경량화, 무인화, 지능화된 우리식의 현대적이고 위력한 주체무기들을 더 많이 연구개발하여야 합니다.

국가방공방어체계를 보다 높은 전략적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반항공경보체계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각종 대공회력수단들로 전국을 그물처럼 뒤덮게 하여 조국의 평공을

요새화하여야 합니다.

국방공업부문에서는 전화의 군자리로 통제급을 따라 배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수령결사옹위정신, 조국수호정신, 자력자강의 혁명정신으로 살며 투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온 사회에 군사증시기증을 세우고 전민항전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전체 인민이 우리의 철천지원수인 미제국주의자들과는 반드시 결판을 내야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침략자들을 격멸하고 조국통일을 이루기 위한 전민항전에 한시화같이 떨쳐나서야 합니다.

로동적위군과 불온청년군위대 대원들은 전투정치훈련을 강화하여 그 어떤 전투정황속에서도 자기 앞에 말려진 일부를 훌륭히 수행할 수 있게 정치군사적으로 둔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민간무력부문에서는 비상통일체계와 지휘체계, 반항공대책을 철저히 세우며 땅어시설을 튼튼히 구축하여 자기 고항과 마을, 일터를 믿음직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힘을 믿고 미래에 대한 신심과 약관에 넘쳐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쌔워나가야 하겠습니다.

## 3.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동지들!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책임진 우리 당앞에 나선 가장 중대하고 절박한 과업입니다.

총결기간 조선로동당은 온 거래가 일일천주로 갈망하는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습니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당의 투쟁은 내외반통일세력과의 첨에 대한 대결속에서 민족자주정신을 고수하고 거예의 단합을 이룩하며 민족번영의 세시대를 개척하여 온에 올바른 정의로운 투쟁이었습니다.

우리 당은 조선의 통일을 달가와하지 않는 반통일세력의 방해책동을 물리치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 통일로선을 입완하게 전제하여 조국통일운동을 줄기차게 전진시켜왔습니다.

우리 나라가 분열되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민족공동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우리 민족자체의 힘에 의하여 하나의 조선으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시고 한평생 구현하여오신 주체적인 조국통일로선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의 앞길에 장애가 조성될 때마다 민족자주정신으로부터 출발한 대법하고 활동적인 계획들을 제시하여 난국을 타개하시였으며 열렬한 민족애와 고결한 대망으로 민족의 통일의지를 비상히 높여주고 거족적통일운동의 전성기를 펼쳐주시였습니다.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애국위업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전민족대단결10대 강령을 발표하시고 전체 조선민족을 하나의 통일례행으로 묶어세우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북남최고위급회담을 몽소 발기하시고 그 실현을 위해 실렬과 로고를 다 바쳐시였습니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주통일사상과 로선, 고려민주평화국창립방안에 기초하여 온 거래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으로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 당은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자주통일의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동적으로 노력하면서 뜨거운 통포애적조치와 여러 칼래의 대화를 통하여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끊임없이 고조시켰습니다.

우리 당은 변화되는 정세와 환경속에서도 조국통일위업을 명실공히 전민족적국위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고 민족대단결의 가치아래 온 민족을 하나의 조국통일력량으로 결속하기 위하여 투쟁하였습니다.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투쟁의 불길속에 북과 남, 해외의 광범한 국력량을 망라한 조국통일민족연합이 결성되고 민족의 슬기를 보여주는 통일행사들이 펼쳐지며 전개되었으며 조국통일운동이 전민족적운동으로 더욱 확대발전되었습니다.

주체적통일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렇도에 의하여 세대를 이어 칼래계 벌어졌으며 그 과정에 조국통일위업실험의 굳건한 티내가 마련되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고려민주평화국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10대 강령을 조국통일3대원장으로 정립하시고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비롯한 타월한 사상과 로선들을 내놓으시여 민족이 나아갈 통일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애국애족의 선군정치로 공화국의 국력을 비상히 강화함으로써 내외반통일세력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수려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시였습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장군님의 렇도밑에 북남판계를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민족자주는 조국통일3대원장에 판통되여있는 기본정신이며 통일운동의 생명선입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한 사업총화 보고

6 면에 서 계 속

남조선당국은 미국에 추종하여 동족을 반대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봉기하는 무분별한 정치 군사적 도망과 전쟁연습을 전면 중지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은 전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평양체방식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데는 평화적 방법과 비평화적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다 준비되어 있지만 조국강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조선민족이 또다시 전쟁의 참화를 당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우리가 평양체방식을 주장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북과 남은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에서 우리의 낮은 단계의 평화체인과 남측의 평화체인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그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남조선당국은 거래 앞에 다진 공약과 우리의 성의 있는 노력에 등을 돌려대고 언제 가도 실현될 수 없는 허황한 《제도통일》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부정하고 일방의 사상과 제도에 의한 통일을 주구하는 것은 결국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전쟁을 하자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우리는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가 가장 우월하지만 그것을 남조선에 강요한 적이 없으며 강요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지난 수십년 동안 적대세력들은 우리 공화국의 《봉파》를 오만하게 떠들어댔지만 우리의 사상과 제도는 날로 더욱 굳건해졌으며 봉파와 파멸의 운명에 처한 것은 남조선의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통치체제이고 반통일적인 대결정책입니다.

북과 남은 상대방에 존재하는 서로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는 온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평양국가를 창립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남조선당국은 《제도통일》의 허황한 꿈을 버리고 내외에 천명한대로 평양체방식의 통일 실현에로 방향전환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남조선당국이 천만부당한 《제도통일》을 고집하면서 끝끝내 전쟁의 길을 택한다면 우리는 정의의 통일 대전으로 반통일 세력을 무자비하게 물어버릴 것이며 거래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할 것입니다.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평화보장과 평양체실현, 이것은 조국통일 3대 현장을 관철하여 조국통일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방침입니다.

우리는 민족자주의 가치, 민족대단결의 가치를 높이 들고나가며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고 평양체방식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함으로써 온 거래가 소원하는 자주적이고 민영하는 통일강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이룩하는데서 현시기 절박하게 나서는 문제는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지금 남조선당국은 미국의 포악무도한 반공화국적 대행위에 추종하여 조선반도 평화를 국도로 긴장시키고 있으며 북남관계를 전례 없는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남조선호전파들은 우리의 병진로선과 그에 따른 정당한 조치들을 《도망》과 《위협》으로 걸고들면서 위험천만한 군사적 도박에 뛰어들고 있으며 우리에 대한 국도의 반감과 적대의식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새 세기와 더불어 온 거래에게 통일의 회망과 희망을 안겨준 민족공동의 소중한 전위들이 깡그리 맘살당하고 북남관계가 결합할 수 없는 혐한 지경에 치닫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통탄할 일입니다.

내외의 거대한 우려를 자아내는 오늘의 심각한 사태를 수습하지 않는다면 우리 민족은 통일을 향하여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으며 나중에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말려들어 참혹한 재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북과 남은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며 통일의 동반자로서 함께 손잡고 북남관계 개선과 조국통일 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북과 남이 화해하고 신뢰하기 위한 출발점이며 전제입니다.

북남관계가 사상최악의 대결상태에 처하게 된 것은 남조선당국의 동족적 대시정책으로부터 초래된 것입니다.

남조선당국은 동족 대결 판념을 버리고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부터 바로 가져야 합니다.

그 누구의 《변화》를 바라거나 《제체봉파》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진실로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한 밀장을 세야 합니다.

북과 남이 통일의 동반자로서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 나가자면 상대방을 자극하는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적대 행위는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고 관계 개선을 방해하는 기본 장애물입니다.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실리전 방충돌과 예리살포를 비롯하여 상대방을 자극하고 비방증상하는 일체 적대 행위들을 지체 없이 중지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에 저촉되는 각종 법률과 제

도적 장치들을 없애버리며 관계 발전에 유익한 실천적 조치들을 위하여 합니다.

남조선당국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을 《리적》과 《종복》으로 불어 부당하게 막해하고 탄압하지 말아야 하며 그들의 의로운 활동을 존중하고 장려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은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며 모든 문제를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처럼 북남군사당국 간 의사 통로가 완전히 차단되어 있고 서로 충분히 계는 철에 대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언제 어디서 무장 충돌이 벌어질지 모르며 그것이 전쟁으로 번져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북과 남은 군사 분계선과 서해 열점 지역에서부터 군사적 긴장과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위하여 군사적 신뢰 분위기가 조성되는데 따라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대화와 협상은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거래의 넘원과 의사에 맞게 풀어나가기 위한 기본방도입니다.

북남관계의 현 파국상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북과 남은 여러 분야에서 각각 한 군의 대화와 협상을 적극 발전시켜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조국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출로를 함께 열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우선 북남군사당국 사이의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북남군사당국 사이에 회담이 열리면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의 충돌 위험을 제거하고 긴장 상태를 완화하는 것을 비롯하여 호상 판심으로 되는 문제들을 포함적으로 협의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더 이상 불순한 목적을 주구하지 말고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로 대화와 협상의 마당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민족 문제, 통일 문제를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성의 있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하여는 민족 공동의 협의들을 존중하고 일관하게 리행해 나가야 합니다.

북과 남이 협의하고 온 세상에 선포한 조국통일 3대 원칙과 6·15 공동선언, 10·4 선언은 북남관계 발전과 조국통일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일관하게 풀어쥐고 나가야 할 민족공동의 대강이며 그에 대하여 그 누구도 일방적으로 부정하거나 외면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민족자주의 가치, 민족 대단결의 가치를 높이 들고나가며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고 평양체방식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함으로써 온 거래가 소원하는 자주적이고 민영하는 통일강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이룩하는데서 현시기 절박하게 나서는 문제는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지금 남조선당국은 미국의 포악무도한 반공화국적 대행위에 추종하여 조선반도 평화를 국도로 긴장시키고 있으며 북남관계를 전례 없는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남조선호전파들은 우리의 병진로선과 그에 따른 정당한 조치들을 《도망》과 《위협》으로 걸고들면서 위험천만한 군사적 도박에 뛰어들고 있으며 우리에 대한 국도의 반감과 적대의식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새 세기와 더불어 온 거래에게 통일의 회망과 희망을 안겨준 민족공동의 소중한 전위들이 깡그리 맘살당하고 북남관계가 결합할 수 없는 혐한 지경에 치닫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통탄할 일입니다.

내외의 거대한 우려를 자아내는 오늘의 심각한 사태를 수습하지 않는다면 우리 민족은 통일을 향하여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으며 나중에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말려들어 참혹한 재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북과 남은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며 통일의 동반자로서 함께 손잡고 북남관계 개선과 조국통일 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북과 남이 화해하고 신뢰하기 위한 출발점이며 전제입니다.

북남관계가 사상 최악의 대결상태에 처하게 된 것은 남조선당국의 동족적 대시정책으로부터 초래된 것입니다.

남조선당국은 동족 대결 판념을 버리고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부터 바로 가져야 합니다.

그 누구의 《변화》를 바라거나 《제체봉파》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진실로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한 밀장을 세야 합니다.

북과 남이 통일의 동반자로서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 나가자면 상대방을 자극하는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적대 행위는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고 관계 개선을 방해하는 기본 장애물입니다.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실리전 방충돌과 예리살포를 비롯하여 상대방을 자극하고 비방증상하는 일체 적대 행위들을 지체 없이 중지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에 저촉되는 각종 법률과 제

정세가 달라지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여 북남합의들이 배제화된다면 앞으로 북과 남이 그 어떤 합의를 하여도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남조선에서 《정권》이 교체되는데 관계없이 북남합의들이 충실히 실행되었더라면 북남관계는 북찰우여 폭넓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 조국통일 위업 실현에서는 이미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었을 것입니다.

북과 남은 민족과 세계 앞에 서 약한 역사적인 합의들을 존중하며 리행해 나가야 합니다.

남조선당국은 이제라도 온 거래의 한결 같은 요구대로 북남합의들을 인정하고 실행하는 길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문벌에 관련 있는 나라들과 주변국들은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부추기지 말고 조선의 통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 민족과 세계 앞에 서 약한 역사적인 합의들을 존중하며 리행해 나가야 합니다.

남조선당국은 이제라도 온 거래의 한결 같은 요구대로 북남합의들을 인정하고 실행하는 길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일본은 조선반도에 대한 재침 야욕을 버리고 우리 민족 앞에 저지른 파괴죄악에 대화에 반성하고 사죄해야 하며 조선의 통일을 향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변국들은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며 조선의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의 요구와 의사에 맞게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하는데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앞으로도 온 민족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을 앞당겨나가는데서 자기의 숭고한 사명과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동지들!

북과 남이 뜻과 힘을 합치면 이 세상에 무서울 것도 없고 못해낼 일도 없습니다.

조국이 통일되면 우리 나라는 8천만의 인구와 막강한 국력을 가진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민족의 강의한 정신과 뛰어난 슬기로 세계를 앞서나가는 선진 문명국,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선도하는 정의의 강국으로 그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게 될 것입니다.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의연히 장애와 난관이 가로놓여 있지만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완수하기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편승의 신심과 힘魄를 넘어서 대강에 향해 한 걸음을 더하고자 희망을 품고 투쟁합니다.

제국주의, 지배주의 세력의 침략과 간섭으로부터 차별화된 세계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권을 수호하며 조선의 통일을 향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계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자체권리를 유지해보려고 필사적으로 밟아하고 있습니다.

세계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반제자주와의 가치를 높이 들고 자주성을 견지해야 합니다.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고 존엄이며 자주독립 국가의 상징입니다.

다른 나라와 민족을 지배하고 세계를 제재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이 더욱 악랄해지고 있는 오늘 자주성을 견지하는 것은 매우 나쁜 민족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활적인 문제로 나옵니다.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나라와 민족들은 외세의 간섭과 차별을 반대해 직하고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야 합니다.

제국주의, 지배주의 세력의 침략과 내정 간섭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미국은 이른바 《민주주의》와 《반데로진》을 방계로 내들고 세계 이르는 곳마다에서 침략과 간섭, 살육만행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퍼드는 미국식 민주주의는 국소주의 권력자들과 부유한 자들이 절대 다수의 무관리하고 빙번한 인민들을 억압 착취하는 것은 세계적인 문제로 나옵니다.

미국이 감행하는 《반데로진》은 반미적인 나라들을 상상으로 한 국가에 대한 악랄한 행위이며 새로운 변종의 침략전쟁입니다.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기본은 미국과 그 주종세력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저지 과叛시키고 세계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미제는 세계 평화와 안전의 교란자, 과피자이며 세계자주화의 주체적 대상입니다.

세계 평화와 안전의 주체는 조선과 같은 제국주의자들의 대상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조선과 같은 제국주의자들이 세계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조선과 같은 제국주의자들이 세계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조선과 같은 제국주의자들이 세계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 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수령님과 장군님의 고귀한 혁명업적은 국제관계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 것입니다.

동지들!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려는 세계 전보적인 민족들과 침략과 전쟁, 강권과 전횡을 일삼는 제국주의 반통세력 사이에 실각한 대립과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한 사업총화 보고

7면에 세계 속

지금 국제무대에서는 미국을 피수로 하는 제국주의 세력의 횡포한 지배와 간섭책동에 의하여 세계적으로 공인된 국제관계의 기본원칙들이 공공연히 무시되고 있으며 제국주의 렴강들의 리해관계에 따라 정의도 부정으로 범죄시되고 있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합리화, 학법화하는 걸의 아닌 《결의》들이 채택되고 정의와 진리가 짓밟히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더 이상 허용되고 목인되어서는 안됩니다.

세계 진보적인 인류는 정견과 신앙, 경제 및 문화발전의 차이에 관계없이 국제적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진정한 국제적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이 내드는 철면피한 《정의》의 허울을 불살라버려야 하며 《정의》의 간판밖에 부정의 가관을 치는 낡은 국제질서를 마사버리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새 국제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짓밟는 제국주의 자들의 강권과 전횡, 이 중기준과 부정의를 배격하고 반대로 문제와 분쟁문제, 환경문제를 비롯한 국제문제들에 서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국제적정의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반제자주적 나라들이 힘이 강할 때에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선량하고 정당하여도 힘이 없으면 국제무대에서 자기가 할 말도 못하고 강자들의 통락물로 되며 정의와 맹심도 지켜낼 수 없게 됩니다.

정의를 귀중히 여기는 세계 진보적 나라들은 자력자강의 원칙에서 자기 힘을 키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자주적 세계를 앞당겨야 합니다.

사회주의 위업을 옹호하고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사회주의는 인류공동의 미래이며 인민들이 사회주의에로 나아가는 것은 역사발전의 법칙입니다.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진 것은 결코 사회주의의 실패가 아니라 사회주의는 그 과학성과 진리성으로 하여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희망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만족스럽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는 반제자주의 핵심역량이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절부시고 세계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주동하는 결정적요인입니다.

사회주의 나라들은 광동의 목적과 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서로 지지하고 뛰어상을 강화하며 협조와 교류를 확대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들은 사회주의의 기치, 반제자주의 기치를 들고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횡을 절부시며 사회주의의 위업을 다그쳐나가야 합니다.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모든 나라와 인민들은 사회주의 위업을 지지지원하고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적 동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플러불가담운동을 강화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플러불가담운동은 위력한 반전쟁에 호령력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자기의 역할을 다해나가야 합니다.

플러불가담나라들은 반제자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세계자주화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플러불가담나라들은 침략적인 군사력과 윤지강화하는 제국주의자들의 핵동을 절부시고 온갖 형태의 침략과 간섭, 애족과 불평등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자주성을 옹호하는 당들과 단체들, 진보적 나라들은 반제자주의 기치를 단결하고 협력하여야 합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반제자주적 힘을 발달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책동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나라와 민족들 사이에 불신과 암울을 조장, 격화시키고 적대감을 조성하여 단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나라와 지역들의 분쟁문제에 끼여들어 그것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혁명적당들과 단체들, 진보적 나라들은 반제자주의 기치를 단결하며 제국주의자들의 교활한 속임수에 넘어가 서로 반목질시하거나 싸우지 말고 광동의 적인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데로 투쟁의 창물을 돌려야 합니다.

자주와 평등, 호상존중의 원칙에서 대륙별, 지역별 협조를 강화하여 세계자주화위업을 전진시키는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자주, 평화, 천선은 조선로동당의 일관한 대외정책이며 세계자주화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변함없이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입니다.

우리 당의 자주적외정책을 편집하여 위하여서는 대외판례분야에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한평생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견지하여오신 주체적립장과 자주적대를 추호도 변함없이 그대로 계승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높으신 국제적권위와 불멸의 대외활동적을 옹호하고 빛내여 나가며 수령님식, 장군님식대로 대외사업을 벌려나가야 합니다.

주체적립장에 확고히 서서 우리 혁명의 요구와 구체적실정에 맞게 대외정책을 편집해나가며 국제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우리 혁명의 리익에 맞게 풀어나가야 합니다.

대외활동에서 우리 당의 대외정책리념과 원칙을 일관하게 구현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자주, 평화, 천선의 리념을 대외활동의 확고부동한 지침으로 삼고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여러 나라들과 파의 선린우호, 천선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켜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세계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온 세계의 자주화는 우리앞에 나서는 총적임무입니다.

우리는 세계자주화위업실현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하며 세계혁명을 주동하는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당파 공화국정부는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주변 판계가 어떻게 바뀌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불변침로를 따라 끝바로 나아갈것이며 자주와 정의의 수호자로서 세계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선구자적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자주의 강국, 핵보유국의 지위에 맞게 대외관계발전에서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시대는 달라지고 우리 나라의 지위도 달라졌습니다.

우리 공화국이 존엄높은 자주의 강국, 핵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것만큼 그에 맞게 대외관계를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혁명적원칙과 자주적대를 확고히 견지하여야 합니다.

대외사업부문에서는 대외활동에서 당의 선언을 옹호하고 자주적대를 고수하며 핵보유국의 지위를 견지하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자주를 지향하고 정의를 사랑하는 모든 반제자주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 지배와 예속을 반대배격하고 세계자주화를 다그쳐나가야 합니다.

선군의 위력으로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여야 합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하는 것은 우리 당

의 투쟁목표이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투쟁하는 것은 우리 당파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입장입니다.

평화는 사회주의의 본성적요구이며 항시적으로 혁전쟁의 위험속에서 살아온 우리 인민이 지니고 있는 넘원입니다.

우리 당파 공화국정부는 미국에 의하여 강요되고 있는 혁전쟁위험을 강위력한 혁역재력에 의거하여 균원적으로 종식시키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것입니다.

우리는 제국주의의 혁위험과 전횡이 계속되는 한 경제건설과 혁무력건설을 명진시킬 때 대한 전략적로선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자위적인 혁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나갈것입니다.

우리 공화국은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핵으로 우리 나라를 침해하지 않는 한 이미 천명한대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것이며 국제사회앞에 지난 혁전쟁방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것입니다.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진보적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 천선협조관계를 적극 발전시켜 우리 혁명의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넓은 포옹력과 도량으로 자주를 지향하고 정의를 사랑하는 모든 나라, 민족들과 사상과 제도의 차이에 관계없이 단결하고 협조할것입니다.

우리 당파 공화국정부는 비록 지난날에는 우리와 적대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는 관계를 개선하고 정상화해나갈것입니다.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영향력을 더욱 높이고 대외관계를 주동적으로, 다각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존엄과 권리와 책임을 첫 자리에 놓고 대외관계를 주동적으로, 다각적으로 발전시켜자 본주의나라들과도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해당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환경에 맞게 방법론을 세워 여러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조선로동당은 앞으로도 사회주의의 기치,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고 자주성을 옹호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세계자주화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나갈것입니다.

우리 당은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도록 하였습니다.

당원들의 당생활을 수령에 대한 충실향을 신념화, 향심화, 도덕화, 생활화하는데로 지향시켜 수령의 두리에 수반해 당원들이 조직사상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뭉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당중앙에 접종시키고 당중앙의 유일적결론에 따라 집행해나가는 엄격한 질서를 세웠으며 당원들의 높은 정치적자각과 민주주의의 중앙집권제에 기초한 당조직규율을 전당에 철저히 확립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당중앙에 접종시키고 당중앙의 유일적결론에 따라 집행해나가는 엄격한 질서를 세웠으며 당원들의 높은 정치적자각과 민주주의의 중앙집권제에 기초한 당조직규율을 전당에 철저히 확립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당의 조직적단결을 과제하고 당중앙의 유일적정도에 도전하는 행위와 요소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렸습니다.

특히 우리 혁명이 가장 어려운 난관과 시련에 직면했던 시기를 기회로 당과 국가의 최고권력을 노리면서 당안에 분파를 조성하고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면밀히 키리고 교활하게 책동한 현대판종파분자들을 제미에 단호히 적발숙청함으로써 주체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고수하고 당의 통일단결을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당의 조직적단결을 과제하고 당중앙의 유일적정도에 도전하는 행위와 요소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렸습니다.

우리 당은 당의 조직적단결을 과제하고 당중앙의 유일적정도에 도전하는 행위와 요소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렸습니다.

우리 당은 당의 조직적단결을 과제하고 당중앙의 유일적정도에 도전하는 행위와 요소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렸습니다.

우리 당은 당의 조직적단결을 과제하고 당중앙의 유일적정도에 도전하는 행위와 요소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렸습니다.

우리 당은 당의 조직적단결을 과제하고 당중앙의 유일적정도에 도전하는 행위와 요소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렸습니다.

우리 당은 당의 조직적단결을 과제하고 당중앙의 유일적정도에 도전하는 행위와 요소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렸습니다.

우리 당은 당의 조직적단결을 과제하고 당중앙의 유일적정도에 도전하는 행위와 요소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렸습니다.

우리 당은 당의 조직적단결을 과제하고 당중앙의 유일적정도에 도전하는 행위와 요소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렸습니다.

## 5. 당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동지들!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창도자이며 조선혁명의 참모부입니다.

총결기간 혁명앞에 가로놓인 준엄한 난국을 주동적으로 태개하고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와 성과들은 우리 당의 혁명 행도와 당의 두리에 수반해 당원들이 조직사상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뭉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당중앙에 접종시키고 당중앙의 유일적결론에 따라 집행해나가는 엄격한 질서를 세웠으며 당원들의 높은 정치적자각과 민주주의의 중앙집권제에 기초한 당조직규율을 전당에 철저히 확립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당중앙에 접종시키고 당중앙의 유일적결론에 따라 집행해나가는 엄격한 질서를 세웠으며 당원들의 높은 정치적자각과 민주주의의 중앙집권제에 기초한 당조직규율을 전당에 철저히 확립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당중앙에 접종시키고 당중앙의 유일적결론에 따라 집행해나가는 엄격한 질서를 세웠으며 당원들의 높은 정치적자각과 민주주의의 중앙집권제에 기초한 당조직규율을 전당에 철저히 확립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당중앙에 접종시키고 당중앙의 유일적결론에 따라 집행해나가는 엄격한 질서를 세웠으며 당원들의 높은 정치적자각과 민주주의의 중앙집권제에 기초한 당조직규율을 전당에 철저히 확립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당중앙에 접종시키고 당중앙의 유일적결론에 따라 집행해나가는 엄격한 질서를 세웠으며 당원들의 높은 정치적자각과 민주주의의 중앙집권제에 기초한 당조직규율을 전당에 철저히 확립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당중앙에 접종시키고 당중앙의 유일적결론에 따라 집행해나가는 엄격한 질서를 세웠으며 당원들의 높은 정치적자각과 민주주의의 중앙집권제에 기초한 당조직규율을 전당에 철저히 확립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당중앙에 접종시키고 당중앙의 유일적결론에 따라 집행해나가는 엄격한 질서를 세웠으며 당원들의 높은 정치적자각과 민주주의의 중앙집권제에 기초한 당조직규율을 전당에 철저히 확립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당중앙에 접종시키고 당중앙의 유일적결론에 따라 집행해나가는 엄격한 질서를 세웠으며 당원들의 높은 정치적자각과 민주주의의 중앙집권제에 기초한 당조직규율을 전당에 철저히 확립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당중앙에 접종시키고 당중앙의 유일적결론에 따라 집행해나가는 엄격한 질서를 세웠으며 당원들의 높은 정치적자각과 민주주의의 중앙집권제에 기초한 당조직규율을 전당에 철저히 확립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당중앙에 접종시키고 당중앙의 유일적결론에 따라 집행해나가는 엄격한 질서를 세웠으며 당원들의 높은 정치적자각과 민주주의의 중앙집권제에 기초한 당조직규율을 전당에 철저히 확립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당중앙에 접종시키고 당중앙의 유일적결론에 따라 집행해나가는 엄격한 질서를 세웠으며 당원들의 높은 정치적자각과 민주주의의 중앙

#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한 사업총화 보고

8면에 서계속

동지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높이 사회주의업,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는데서 나서는 중대한 파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조선로동당을 영원히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당의 명도적역할을 끌어들이고자야 합니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나가는것은 우리 당건설의 총적파업입니다.

우리 당을 위대한 수령의 당,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나가는데 주체혁명위업완성의 결정적답보가 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전당을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한 투쟁을 함께 벌여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조선로동당의 강대성의 상징이며 영원한 수령입니다.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수령으로 변함없이 높이 모시는것은 우리 혁명의 지상의 요구이며 전당과 전체 인민의 조직적의사이고 한결같은 네원입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수령으로 모시고 김정일동지의 사상과로선을 일관하게 물어쥐고 철저히 관철하여야 조선로동당이 앞으로도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나갈수 있습니다.

전당김일성-김정일주의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세시하신 전당김일성주의의 실화발전이며 수령의 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고 당의 전투력과 명도력을 끌어들이고 높아나가기 위한 조선로동당건설의 전략적로선입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우리 당과 혁명의 지도사상으로 영원히 높이 들고나가며 수령님들의 불멸의 명도업적을 견결히 용호고수하고 끌어들이고자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과 혁명업적은 우리 당의 명맥을 이어주는 혈통이며 우리 당건설과 주체혁명위업을 추동하고 끌어들이는 투쟁의 기치, 승리의 원천입니다.

당조직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교시와 수령님들께서 세시하신 전선과 정책을 당의 강령으로 물어쥐고 한치의 양보나 드팀도 없이 관철하여야 하며 모든 사업을 수령님들의 사상과 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여나가는데 지향시키고 복종시켜야 합니다.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더욱 심화시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전당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일색화하여 사상과 신념의 결정체로 다지는것은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확립하는데서 기본핵으로 필립니다.

우리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침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키며 당건설과 당활동을 철두철미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대로 하여야 합니다.

수령의 혁명사상과 당정책에 배치되는 온갖 이색적인 사상조류와 요소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여 당안에 김일성-김정일주의와 그 구현인 당정책박애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절대로 끼여들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모든 당원들이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끈튼히 무장하며 그것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실천에 구현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당중앙을 유일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정치사상동일과 단결을 반복같이 다지는데 중심을 두고 실화시켜나가야 합니다.

당의 통일단결을 다지는데서 중핵적인 문제는 단결의 중심, 명도의 중심인 당중앙의 권위를 절대화하고 견결히 옹호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권위, 당의 권위를 훼손시키거나 그에 도전하는 자그마한 요소도 절대로 유팽과 과거지 말고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리며 당과 수령에 대한 운갖 계급적원쑤들의 공격과 비난을 철저히 짓부셔버려야 합니다.

당중앙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적동일과 혁명적단결을 눈물과 같이 지키고 당안에 언제나 단결의 정신, 단결의 기풍이 차넘치게 하여야 합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이 우리 당의 반종파투쟁경험과 교훈을 명심하고 당의 통일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기수가 되어야 합니다.

당중앙의 유일적령도밀에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야 합니다.

모든 사업을 당중앙의 유일적령도밀에 조직진행하며 세기되는 문제들을 당중앙의 결론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의 결정, 지시가 하부단까지 즉시에 전달되고 즉시에 집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당의 로선과 방침을 겸사관찰하며 사업에서 엄격한 규률과 질서를 세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과 혁명대오를 끈튼히 꾸리고 그 전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조직들에서 혁명의 핵심풀간인 간부대별과 당대별

을 꾸리는 사업에 선착적인 힘을 넣어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당에 대한 충실향과 인민에 대한 신실성, 높은 실력을 지니고 당의 의도대로 일을 제절률을 알며 군중속에서 신망이 있는 일군들을 간부로 선발배치해야 합니다.

당간부양성기관들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협직일군들에 대한 재교육사업을 개선하며 당조직들이 후비간부양성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간부들에 대한 교양과 통제를 강화하여 그들이 실천투쟁과 당생활의 용광로속에서 당성을 끌임없이 단련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정책사업을 개선하고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당정책사업에서 제정된 질서와 당정책원칙을 엄격히 지켜 당의 명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에서 핵심적, 선봉적역할을 하는 군인,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로 당대별을 질적으로 끈튼히 꾸려야 합니다.

당세포를 비롯한 당조직들에서는 수령에 대한 충실향을 높이는데 기본을 두고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하여 당생활을 조직하고 지도하며 당원들속에서 자작적인 당생활기풍을 세워야 합니다.

모든 당원들은 언제나 당원이라는 높은 자각을 암고 혁명과업수행에서 군중의 모범이 되고 군중을 이끌어나가는 선봉투사가 되어야 합니다.

당조직들이 군중과의 사업을 더욱 심화시켜 전체 인민을 당의 두리에 끈튼히 묶어세워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당세포와 군중과의 사업에 큰 힘을 넣어 그들이 혁명과업수행에서 선봉적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문건이 아니라 산 사람을 보아야 하며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충실향을 보고 사람들을 평가하며 극소수 적개분자들을 내놓고는 평범한 군중을 다 교양하고 포섭하는 원칙에서 군중과의 사업을 심화시켜나가야 합니다.

일심단결이 혁명의 천하지대본이라면 민심은 일심단결의 천하지대본입니다.

당조직들은 민심을 제때에 정확히 파악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물어주어 광범한 군중이 당을 친심으로 믿고 따르도록 하여야 합니다.

모든 사업을 민심에 맞게 조직진행하며 민심을 외면하거나 흐리게 하는 현상들과 투쟁하여야 합니다.

당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사상사업은 당의 기본임무이며 사상사업을 확고히 앞세우고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물어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방식입니다.

당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전반적인 당사업과 혁명과 건설에서 일대 전변을 일으킬수 있습니다.

사상사업에서 유일판리제의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당사업은 전당과 전체 인민을 수령의 사상으로 무장시켜 하나의 사상으로 승위하고 웅직이게 하는 사업이며 여기에서는 당의 사상과 어긋나는 그 어떤 자그마한 요소도, 그 어떤 「특수」도 허용되어서는 안됩니다.

당사업은 전당과 전체 인민을 수령의 사상으로 무장시켜 하나의 사상으로 승위하고 웅직이게 하는 사업이며 여기에서는 당의 사상과 어긋나는 그 어떤 자그마한 요소도, 그 어떤 「특수」도 허용되어서는 안됩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활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키우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 힘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당조직들에서는 위대성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김정일에 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을 실속있게 하며 온 나라에 혁명적인 학습열풍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에 대한 충실향을 절대불변의 신념으로 간직하고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뼈 속깊이 계특하며 그 어떤 광풍속에서도 오직 당을 따라 혁명의 한길을 끌어바로 가는 참된 혁명가로 준비시켜야 합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모두가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깊이 인식하고 결사관찰하는 당정책의 결전한 용호자, 철저한 관찰자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상교양사업을 혁명과업수행에 기본을 두고 대상의 특성과 준비정도에 맞게, 현실성있게 진행하여 대중이 당의 사상과의도에 스스로 공감하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침입식사상방법의 요구대로 사상공세의 대상을 바로 정하고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이대야 합니다.

당에서 중시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교양, 선동, 강연, 출판보도를 비롯한 선전선동방법과 수단들을 종동원하여 사상사업을 힘있게 벌려 온 나라에 우리 당의 혁명정신이 차넘치고 새로운 비약과 혁신의 불길이 세계에 타오르게 하여야 합니다.

당사업전반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는것은 인민대중을 위하여 투쟁하여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활동하는 우리 당의 본성적요구입니다.

모든 당사업과 당활동을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진

행하여야 합니다.

전당에 인민의 힘을 밟고 인민에게 의거하는 기풍이 차넘치게 하며 당시사업의 주되는 힘을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야 합니다.

『전당이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열사복무하자!』, 이것이 오늘 우리 당이 들고나가야 할 투쟁구호입니다.

우리는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들의 운명을 지켜 주며 인민들의 레익과 권리의 최우선, 절대시하는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당일군들과 당원들은 당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뜻을 심장에 새기고 인민앞에 무한히 경순하여야 하며 생생눈길을 앞장에서 해치면서 인민이 바라는 일, 인민이 먹을 볼수 있는 일을 한 가지라도 더 찾아야하는 인민의 참된 총복이 되어야 합니다.

현시기 당사업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는데서 세도와 판로주의, 부정부폐행위는 추호도 용납할수 없는 『주적』입니다.

세도와 판로주의, 부정부폐현상파의 투쟁을 강도높이 벌리야 우리 당이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으로서의 본래를 고수하고 인민대중의 요구와 레익을 철저히 용호보장할수 있습니다.

당일군들은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인민관을 체질화, 인생관화하여 사업과 생활에서 세도와 판로주의, 부정부폐행위의 사소한 요소도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여러 부문 일군들속에서 나타나는 세도와 판로주의, 부정부폐현상들을 해부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근원을 찾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세도와 판로주의, 부정부폐행위를 철저히 없애기 위한 사업을 전면적으로 구현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당일군들속에서 나타나는 세도와 판로주의, 부정부폐행위들을 빠짐없이 끌어내야 하며 당일군의 모자를 쓰고 세도와 판로주의를 부리고 부정부폐행위를 하는자들에게 대해서는 당적규율을 엄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세도와 판로주의, 부정부폐행위를 철저히 없애기 위한 사업을 전면적으로 구현하여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식 사업방법은 인민들속에 들어가 대중의 마음을 움직여 당의 두리에 끌어세우고 혁명과 진실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며 객식과 품을 매치하고 모든 문제를 창조적으로 실속있게 풀어나가는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사업방법입니다.

당사업에서 행정화경향을 극복하고 당사업을 명실공히 사업파의 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당사업을 회의와 문서로 대체하는 사무실적사업방법과 일본식에 풀어나가는 가치를 통하여 당정책과 방침을 차별적으로 관철해야 합니다.

아래에 내려가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가르치고 도와주고 이끌어주는것은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의 기본직능입니다.

당경영지도사업도 해당 단위의 사업을 추켜세우고 아울러 일군들의 사업을 도와주고 밀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되어야 합니다.

낡은 형식과 방법, 도식적인 품을 배격하고 당사업방법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혁신하여야 합니다.

각급 당조직들은 당일군식 사업방법은 인민들속에 들어가 대중의 마음을 움직여 당의 두리에 끌어세우고 혁명과 진실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며 객식과 품을 매치하고 모든 문제를 창조적으로 실속있게 풀어나가는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사업방법입니다.

당사업에서 행정화경향을 극복하고 당사업을 명실공히 사업파의 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각급 당원들은 당일군식 사업방법은 인민들속에 들어가 대중의 마음을 움직여 당의 두리에 끌어세우고 혁명과 진실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며 객식과 품을 매치하고 모든 문제를 창조적으로 실속있게 풀어나가는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사업방법입니다.

당사업에서 행정화경향을 극복하고 당사업을 명실공히 사업파의 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각급 당조직들은 당일군식 사업방법은 인민들속에 들어가 대중의 마음을 움직여 당의 두리에 끌어세우고 혁명과 진실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며 객식과 품을 매치하고 모든 문제를 창조적으로 실속있게 풀어나가는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사업방법입니다.

당사업에서 행정화경향을 극복하고 당사업을 명실공히 사업파의 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각급 당조직들은 당일군식 사업방법은 인민들속에 들어가 대중의 마음을 움직여 당의 두리에 끌어세우고 혁명과 진실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며 객식과 품을 매치하고 모든 문제를 창조적으로 실속있게 풀어나가는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사업방법입니다.

당사업에서 행정화경향을 극복하고 당사업을 명실공히 사업파의 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각급 당조직들은 당일군식 사업방법은 인민들속에 들어가 대중의 마음을 움직여 당의 두리에 끌어세우고 혁명과 진실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며 객식과 품을 매치하고 모든 문제를 창조적으로 실속있게 풀어나가는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사업방법입니다.

당사업에서 행정화경향을 극복하고 당사업을 명실공히 사업파의 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각급 당조직들은 당일군식 사업방법은 인민들속에 들어가 대중의 마음을 움직여 당의 두리에 끌어세우고 혁명과 진실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며 객

# 당 중앙따라 영원히 한길을 걸 억척 불변의 신념과 의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2일회의 진행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 2일 회의가  
5월 7일에 진행되  
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 신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  
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계속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역사적  
인 보고를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으며  
대회참가자들은 북장  
다만한 세계정치의 둘  
종속에서도 당의 령도  
따라 주호의 훈들립없이  
이 주체혁명위업, 선군  
혁명위업을 즐기차게  
전진시켜온 전통적로  
정을 간회깊이 돌아껴  
보았으며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사상과 전략,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승리와 영광만을 펼쳐  
가는 백두산대국의  
창창한 미래를 확신하  
였다.

대를 이어 걸출한  
수령, 타월한 정치가  
를 높이 모시고  
조국과 민족의 존엄  
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며 사회주의건설의 시대적모범  
을 창조해나가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  
심이 대회참가자들의 가슴마다에 차  
넘쳤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마치시자 대회참가자들은



열광적인 박수와 우렁찬 『만세!』의  
환호를 더쳐울리였다.

대회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함과 업적으로 빛나는 우리 당을 조직

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  
을 비상히 높여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주의화위업을 힘차게 다그쳐나가기  
위한 불멸의 대강을 마련해주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하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  
하기 위한 토론들이 진행되었다.

각 도당조직대표들이 김기남동지,  
리명수동지, 조연준동지, 박봉주동지,

장철동지, 왕창옥동지, 김재봉동지,  
오춘영동지, 김상민동지, 허영춘동지,

사상리론적예지와 비범한 령도로 우리  
당 강화발전의 빛나는 전성기를 펼쳐  
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리였다.

12면으로 계속

